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교 2학년'

전북교육청 제8주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제8주기를 맞아 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 도교육청 광장에서 열린 '제8주기 4·16 세월호 참사 추념식'은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을 주제로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추모식은 식전 추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주시립교향악단의 금관 앙상블, 전주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린이 합창, 타악연주단의 타악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는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번 추모 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전주덕일중학교 송재이

학생과 함께 벌이 된 세월호 아이들에게 편지를 띄워 보내면서 추모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아울러 전북중등음악교원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연주와 전주시립합창단의 성악 4중창을 폐막 공연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를 앞두고 전북교육청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노란 리본 조형물과 노란 비닐개비 등 상징물을 활용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정원을 조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 안전한 나라를



희망하기 위해 추념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사

서거석 후보, "많은 예산·신규사업 유치로 전북교육 대전환 이룰 것"

교육감 직속 국가예산추진단 운영 계획 발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국가예산추진단을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예산추진단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기로 했다. 또한 신규 국가사업 제안·발굴 시스템을 갖추고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사업 발굴과 예산 반영, 국회 예산 심의 등 국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교육청과 전북도, 해당 시·군, 정치권,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전북교육예산 정책협의회'도 운영한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교육예산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교육 관련 정책 예산사업이 발생하면 유기적인 협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증설과 에듀테크(교육+정보통신기술)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미래교육캠퍼스 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전북대 총장 재임 시절 지역의 핵심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인공공룡전염병 연구소를 시작으로 LED융합기술지원센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IT 융합 차세대 농기계기술지원사업, 미국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와 공동연구소 설립 등의 국책사업 유치 노후를 갖고 있다.

서 예비후보는 "그간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불통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북교육이 활력을 잃고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상시적인 국가예산 대응시스템 가동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을 유치해 전북교육을 대전환하는데 총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전북지역 고교생 캠퍼스 진로체험 진행

전주대학교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해마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퍼스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 대학입학 전 전공 수업 일부를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영생고와 전주상업정보고 3학년 학생 각각 230명, 150명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학과) 교수 특강 ▲학과 진로상담과 체험행사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등 고교생들의 진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캠퍼스 투어도 함께 운영된다.

지난 15일 영생고와 전주상업정보고 학생 380명은 전주대학교를 방문해 이석한 교수(정보통신공학과)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이정욱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의 '역사문화와 메타버스' 특강에 참여했다. 또 관광경영학과, 운동처방학과, 한식조리학과 등 10개 학과에서 운영하는 학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했다. /정은성 기자

미디어 비판적 읽기활용 능력 육성 교육 실시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11월까지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미디어센터 소속 전문 강사단과 함께하는 2022 찾아가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또한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른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재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과 융합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도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 총 34개교, 86개 학급에서 이뤄진다.

학급당 2차시 총 4시간을 지원하며, 주요 내용은 ▲탐험 미디어의 세계 ▲청소년을 위한 뉴스는 있다? 없다

▲내 친구 '유튜브' 청정지역을 지켜 내자 ▲어그로 콘텐츠에 대처하는 현명한 디지털시민 되기 등이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융합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운영한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개 학교에 13차시 총 26시간을 지원하며, 미디어에 대한 개념 이해 및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습 교육 등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의 개념과 소통의 의미 알기, 미디어가 만드는 차별과 혐오 찾기, 미디어의 전달 과정 이해 등이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5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찾아가는 권역별 대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권역별 대학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대에서 열린 이번 전라제주권역 설명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및 일반 대학, 고용센터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및 트레이닝 안내 ▲주요 훈련 과정 소개 등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기에 발맞춰 디지털 분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과, 디지털 및 신



기술 분야에서 실무중심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구분돼 있다.

청년들은 코딩, 빅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3D 디자인 등의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받을 때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년제 대학 재학

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재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과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이수한 경우 비교과 포인트와 연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20일 전북교육아카데미 개최

김영대 음악평론가 초청... BTS와 K-POP 성공요인 고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심심(深心)한 초대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저녁 7시 도교육청 참조나 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김영대 음악평론가를 초청해 BTS현상을 통해 본 한류의 현주소'를 주제로 BTS와 K-POP의 성공요인과 전략을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회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북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매월 1회 진행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je.gok.kr/parents>)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해상풍력 실증사업 성공적 모델 '맞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서울대 해양환경평가연구원,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원장, 이장호 총장)과 서울대학교 해양환경평가연구원(단장, 김종성 교수)이 지난 15일 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상풍력과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반 원천 과학기술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해상풍력단지 등 해역이용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제반 지침과 표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노정래, 권봉오 교수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기초 미원을 위한 연구에 참여해 5년간 총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